

한국 인턴인력 활용 세미나

세스나그룹

최근 증가 추세에 있는 한국 인턴인력 활용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린다.

리쿠르팅 전문기업 세스나그룹(대표 김성민)은 미주 지상사와 한인기업을 대상으로 '한국 인턴 인력 활용 세미나'를 오는 25일 오전 9시부터 뉴저지주 잉글우드클립스에 있는 KOTRA

뉴욕수출인큐베이터센터에서 갖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스나그룹이 개발한 인턴스태핑 서비스 인재활용 방법과 한인기업의 인턴스태핑 이용 성공사례 등 새로운 인력자원 이용 노하우와 정보를 설명한다.

인력분야는 IT, 물류, 디자인, 의류패션, 회계, 엔지니어링, 경영, 영업마케팅, 호텔, 건

축토목, 관광분야 등 한국에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대졸급 인재들.

특히 J1비자를 발급받아 최장 1년6개월까지 근무할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소요비용은 1인당 연 1만5000달러 이하로 기업경쟁력 향상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비자발급, 주거, 의료보험 등 인재채용 진행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하며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된다. 201-567-8886.

최은무 기자
emchoi@koreadaily.com